

“평생 살고 싶은 광양 비전 실현 위해 ‘전력투구’”

올해 새해설계

정인화 광양시장

이차전지·수소경제 기반 신성장 동력 확보 구봉산·백운산 중심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 등에 중점을 두고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광양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올해 시정 비전을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확충 ▲청년이 매력을 느끼는 농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제시했다.

먼저, 이차전지와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광양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정과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화하며, 2028년까지 수소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양 첨단소재연구소센터를 내년까지 준공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와 수소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번영과 직결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광양상설시장 증축사업과 광양5일 시장 주차장 확장 조성을 마무리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 개선과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관광 부문에서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백운산권과 구봉산권, 섬진강권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과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관광객 유치에 위해 이순신대교 일대를 활용한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및 산악관광명소화 사업을 연내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또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할 광양문화예술재단(가칭)을 내년 1월 출범시키고,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추진한다.

농촌 분야에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 도입과 청년농업대학 운영, 고소득 작물 육성 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지고,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생애주기별 복지 플랫폼을 완성해

복지 정책도 강화한다. 정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아동 중증질환 관리 진료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인 예방접종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플랫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주거 지원 확대와 스마트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 운영 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인화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정신으로 광양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고흥군 개발 건강음료 ‘하이뉴’ 中시장 인기몰이

고흥 유자·중국 해삼 기반 수출 10일 만에 완판행렬

고흥군이 개발한 건강 음료 ‘하이뉴’가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유자와 중국 해삼 추출물을 기반으로 만든 이 음료는 중국 현지에서 초도물량 30만병을 출시해 10일 만에 완판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하이뉴’는 고흥 유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2023년 9월 공영민 고흥군수가 농수산물 수출개척단 활동 중에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이후 전남농업기술원과 중국 산둥불곤그룹 산하 식품 연구소가 협력해 음료수 레시피를 완성했으며, 지난달 27일 초도물량 30만병을 생산, 중국에 수출했다.



하이뉴 제품(왼쪽)과 2023년 9월 고흥군과 해양식품영양첨단연구원이 식품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고흥군 제공>

‘하이뉴’는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한 독특한 조합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자는 레몬보다 3배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해 피로 회복과 항노화 효과가 뛰어나며, 해삼은 원기 회복과 보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이러한 건강 기능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이뉴’의 성공은 고흥 유자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당초 연간 100만병 생산 목표를 300만병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국을 넘어 다른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군은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석류를 활용한 신제품 음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농어민들이 오직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 마케팅, 물류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곡성 아기울음소리 늘었다

출생아수 전년비 40.32% ↑ ...다양한 지원 정책 주요

곡성군은 9일 “출생아 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87명으로 집계돼 2023년 62명 명에 비해 25명(40.3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곡성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곡성군은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 산후 도우미 본인부담금 90% 지원, 임신부 안전벨트 등 건강관리 물품 최장 7개월 대여 등 2023년부터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2024년부터는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실제로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 사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낳고 싶은 곡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이러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관련된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곡성군보건의로실(061-300-8862)으로 문의할 수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대설 대비 ‘총력’

주요도로 등 집중 제설작업 시행

장성군은 9일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라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덤프트럭 등 장비 12대를 투입해 도로 320km, 고갯길 13개소에서 집중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적설량이 많고 급경사를 지닌 지방도 15호선 장성 북아-고창 방면 양고살재는 도로 통제를 시행 중이다.

경사로·결빙구간에는 얽하나트룸 120t, 천원형 염수 30t을 살포하는 등 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마을 안길은 읍면 자원봉사단이 트랙터 등 170대 장비를 동원해 눈을 치우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라 농가 등을 방문해 제설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9일까지 눈 예보가 이어지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으

면 안 된다”며 “사고 제로(0), 군민피해 제로로 목표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

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사랑상품권 최초 15% 할인 판매

1월 한달간...1인 최대 50만원까지

순천시 9일 “새해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기존과 달리 지류(종이)형, 모바일형 상품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역대 최초의 할인율이며, 1월 한 달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으로 발행된다.

순천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판매액 집계 결과 17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9월 추석맞이 10% 할인 판매 한 달 전체 실적인 15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류형 순천사랑상품권의 경우 순천시 관내 농협은행, 순천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예농협, 전남농농협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형 순천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순천사랑 체크카드 발급은 순천시 관내 모든 농협, 신한, 우체국, 새마을금고, 광주은행에서 할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구례산수유꽃축제 준비 ‘착착’

오는 3월15-23일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 주제

구례군은 9일 “지난 7일 군정 상황실에서 구례 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구례 산수유꽃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과 축제 추진위원회는 관광환경 개선과 지역 소득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보다 품격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구례산수유꽃축제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는 3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산동면 지리산 견실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축제는 꽃축제 본연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 야시장을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강력히 추진한다.

또한 지역 음식점의 참여를 확대해 풍성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 행사장의 기능을 개선해 방문객 편의성과 축제장의 활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주제 프로그램을 강화해 생생한 구례군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종성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산수유꽃축제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군, 18세까지 출생수당 매월 20만원 지원

2024년생부터 최대 4천320만원 지급

담양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도·담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

다. 지원 금액은 담양군과 전남도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2025년부터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1인 기준 매월 20만원씩 총 18년간 4천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은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

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은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단,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2025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매월 15일 기준 실거주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담양군은 지난해 출생수당 신설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했으며, 군은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를 개정해 출생기본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양군 출생기본수당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군’ 견실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